

방송가 '스핀오프' 잇따라...예능→드라마까지 열풍 왜?

오디션 프로그램→후속 예능 수준

인기 예능들, 기존 포맷 안전 선택

'마우스', 드라마 재구성 형태 공개

방송사들이 기존 프로그램에서 파생한 스핀오프 프로그램들을 경쟁하듯 잇따라 내놓으면서 이른바 스핀오프 열풍이 불고 있다.

국내 방송에서 스핀오프 프로그램은 주로 예능 프로그램들에서 쏟아지고 있지만, 드라마까지 그 영역이 넓혀지는 모양새다.

스핀오프는 기존의 영화, 드라마 등에서 등장인물이나 설정을 가져와 새로운 이야기(작품)를 만들어 내는 것을 말한다.

최근 대표적인 사례로 꼽히는 것은 오디션 프로그램 이후 후속 제작되는 예능 프로그램이다. 우승자 등 출연자들로 다시 새로운 예능을 선보이는 것이 하나의 공식처럼 여겨지는 상황이다.

전국적인 트로트 열풍을 불러왔던 TV조선이 그 포문을 열었다. '미스터트롯' 이후 순위권 출연자들로 구성된 '뽕송아학당', '신정곡을 불러드립니다-사랑의 콜센타' 등 예능을 선보였고, 이 역시 흥행에 성공했다. 지난해 첫 방송 이후 1년여가 지난 현재도 10%를 넘는 높은 시청률을 유지하며 인기를 이어가고 있다.

JTBC도 화제가 된 '싱어게인-무명가수전'의 스핀오프로 '유명가수전'을 내놓았다. '싱어

게인' TOP3가 국내 전설의 유명가수들을 만나 펼쳐지는 음악과 이야기를 담는다는 콘셉트다. KBS 2TV '트롯 매직유랑단'도 '트롯 전국체전'의 TOP8이 출연하는 트로트 뮤지컬쇼를 내세웠고, TV조선 역시 '미스터트롯' 종영 후 TOP7이 출연하는 예능 '내 딸 하자'를 내놓았다.

이 같은 추세는 오디션 프로그램으로 화제가 충분히 된 상황에서, 곧바로 후속을 편성해 그 인기를 이어가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방송사가 발굴한 새로운 인물에 대한 화제성을 가져가면서, 출연자들에게 형성된 팬층을 그대로 확보해 어느 정도 시청률을 보장할 수 있다는 점도 이점이 된다.

인기 안정권에 든 예능들도 스핀오프를 내놓고 있다. 새로운 도전에 따른 불확실성보다는 기존의 포맷을 유지하며 안정적인 시청률이나 인기를 이어가는 안전한 선택을 하는 것이다. 이러한 스핀오프 프로그램을 OTT나 디지털 콘텐츠 등으로 선보이기도 한다.

다음 달 공개되는 티빙 오리지널 '아이돌 반야스기 대회'는 tvN '놀라운 토요일'의 아이돌 버전 스핀오프 프로그램이다. '놀라운 토요일'

MC 붐이 그대로 출연하며, 기존 포맷은 살리되 아이돌 멤버들로 구성했다. E채널 예능 '노는언니'의 스핀오프 '노는브로'도 나온다. 출연진이 여성 스포츠 선수들에서 남성 스포츠 선수들로 바뀌는 형태로, 왓차가 티캐스트와 함께 공동 제작한다.

tvN '유 퀴즈 온 더 블럭'은 유재석과 조세호가 MC 맡은 스핀오프 '난리났네 난리났어'를 지난 1월 공개했다. '코미디빅리그' 인기 코너 '사이코러스'의 디지털 스핀오프인 '뽕사이코러스'도 최근 유튜브에서 공개됐다. MBC는 '구해줘! 홈즈'의 MC들을 그대로 투입한 스핀오프 '바꿔줘! 홈즈'를 선보였다. 코미디TV 예능 '맛있는 녀석들'은 지난 2월 스핀오프 시트콤을 제작한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현재 예능 스핀오프가 압도적인 상황이지만, 드라마도 발을 내디뎠다. 티빙은 tvN 드라마 '마우스'의 스핀오프 '마우스: 더 프레데터'를 28일 공개한다. 기존 드라마를 재구성하는 형태이지만, 향후 또다른 시도로 스핀오프가 나타날지도 주목된다.

'마우스: 더 프레데터'는 '마우스' 종영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본편 속에 감춰진 서사를 공개할 예정이다. 특히 주인공 이승기 시점으로 프레데터 사건을 재구성한다. 티빙 측은 "시청자들이 궁금해했던 프레데터 시점에서의 이야기로, 궁금증 해소는 물론 향후 전개될 사건의 실마리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는 6월 첫 방송을 앞둔 tvN 드라마 '슬기로운 의사생활' 시즌2도 주인공들이 본래로 문



친 스핀오프 격인 '슬기로운 캠핑생활'을 유튜브 채널로 선보이기도 했다.

다만 스핀오프가 후속작을 나오면서 특색을 찾기가 어렵고, 시청자들의 새로운 콘텐츠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켜주지 못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덕현 대중문화평론가는 "스핀오프는 성공작에 기대 지속적으로 콘텐츠의 성공을 노리는 측면에서 기획된다. 새로운 시도로 인한 모험을 피해서 안전한 선택을 하는 것"이라며 "최근에는 일종의 하나의 세계관을 두고 그중

일부를 떼어 새로운 콘텐츠를 선보이는 형태인데, 대중들에게도 스핀오프가 익숙해졌다"고 말했다.

이어 "익숙함으로 마니아들에게는 통하는 콘셉트이지만, 새로운 콘텐츠를 요구하는 소비자들에게는 부족한 면이 생길 수 있다"며 "드라마는 제작 방식 특성상 스핀오프 제작이 쉽지는 않을 것 같다. '마우스'의 경우 반전이 계속되는 극 내용으로 시점에 따라 이야기가 다르게 보일 수 있어 새로운 버전에 대한 흥미로운 시도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라미란, MBN '보쌌' 첫 회 특별 출연

'부암동' 감독과 의리

MBN '보쌌' 특별출연으로 화제를 모은 배우 라미란의 스틸컷이 29일 공개됐다.

라미란이 오는 5월1일 오후 9시 40분 첫 방송되는 '보쌌-운명을 훔치다'(보쌌)를 위해 지원사격에 나섰다. 드라마 '부암동 복수자들'을 연출한 권석장 감독과의 의리로 흔쾌히 출연을 결정했다.

공개된 스틸컷에서 라미란은 야심찬 시각, 고운 한복을 입고 앉아 설레는 얼굴을 감추지

못하고 누군가를 기다리는 양반가 여인의 모습을 하고 있다. 그녀는 극중 생계형 보쌌꾼 '바우'(정일우)에게 보쌌을 당하는 과부로 등장한다.

지난 24일 방영된 스페셜 방송 '보쌌-인연의 시작'에서 가려진 얼굴에 호기심을 자극했던 그 주인공이다.

MBN 측은 "극중 라미란은 낯설지만 흥미로운 조선 풍습 '보쌌'과 바우의 직업인 '생계형 보쌌꾼'에 대해 시청자들에게 설명해줄 인물"이라고 귀띔했다.

하이라이트, '전참시' 출연...완전체 컴백

군백기 끝내고 한층 물오른 예능 케미스트리 드러낼 예정

그들 '하이라이트'가 '전참시'에 출격한다. 오는 5월 1일 오후 11시 10분 방송되는 MBC TV 예능프로그램 '전지적 참견 시점'에서는 완전체로 돌아온 하이라이트의 하루가 그려진다.

하이라이트는 지난해 4월 리더 윤두준의 전역을 시작으로 양요섭, 이기광, 손동운 등 멤버 전원이 국방의 의무를 마쳤다.

이날 하이라이트는 신곡 트레일러 촬영에 나선다. 이곳에서 멤버들은 군백기를 끝내고 한층 물오른 예능 케미스트리를 드러낼 예정이다. 특히 막내 손동운은 등장과 함께 의욕 넘치

는 모습으로 깜짝 놀랄 개인기를 선보였다고 한다. 이에 이기광은 "예능의 꽃은 손동운"이라고 응원을 아끼지 않았다고. 하지만 손동운은 예상치 못한 개인기 실수(?)로 모두를 뺄 터지게 만들었다는 후문이다.

윤두준은 업그레이드된 예능감으로 눈길을 끈다.

이날 그는 여유 넘치는 모습으로 성대모사 메들리를 선보여 스튜디오를 웃음바다로 만든다. 뿐만 아니라 대가실의 기습 댄스로 "역시 리더다, 리더"라는 멤버들의 감탄사를 이끌어 냈다.

그런가 하면 매니저는 깜짝 스케줄을 공지



해 멤버들을 놀라게 만든다. 무려 7개월 뒤 스케줄이었다. 스케줄의 정체에 멤버들 모두 입을 다물지 못했다고 한다.

금새록, '골목식당' 새 MC 합류...정인선 후임

'부천 상동골목' 편 촬영부터 함께 진행

배우 금새록이 SBS 예능 '백종원의 골목식당' 새 MC로 합류한다.

29일 SBS에 따르면 금새록은 최근 하차 소식을 전한 배우 정인선의 후임이자 '백종원의 골목식당' 4대 MC로서 백종원, 김성주와 호흡을 맞춘다.

이날 진행되는 '부천 상동골목' 편 촬영부터 함께 진행한다.

금새록은 SBS 금토드라마 '열혈사제'에서 신임형사 '서승아' 역을 맡아 몸 사리지 않는 액션 연기로 대중들에게 눈도장을 찍었다.

또 버라이어티 예능 '런닝맨'에도 여러차례 출연해 솔직한 매력으로 예능감을 뽐낸 바 있다.

다양한 아르바이트 경험 등 본인의 성장 과

정 속에서 터득한 노하우로 새로운 생활형 MC의 탄생을 예고하고 있다.

금새록은 '백종원의 골목식당'을 통해 데뷔 첫 예능 MC에 도전한다. 그는 '백종원의 골목식당'에서 '2030 요즘 세대'의 입맛을 대변하고, 기존 MC 백종원·김성주와는 또 다른 매력의 '열정 가득' 초보 MC로 프로그램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정우진 PD는 "금새록이 배우가 되기 전, 모델하우스, 영화관, 예복판매 등 각종 알바를 섭렵한 이른바 '알바 금메달'이더라. 현장 경험이 많기 때문에 '골목식당'에 최적화된 MC"라며 활약을 기대했다.

금새록이 합류하는 첫 방송은 다음달 12일에 첫 공개된다.

'비와 당신의 이야기' 개봉 첫날 박스오피스 1위

2위 '더 스파이'·3위 '내일의 기억'



영화 '비와 당신의 이야기'가 개봉 첫날 박스오피스 1위를 기록했다.

29일 영화진흥위원회 영화관입장권 통합전산망에 따르면 '비와 당신의 이야기'는 지난 28일 2만9853명의 관객을 동원해 정상상을 차지했다. 누적 관객수는 3만1400명이다.

'비와 당신의 이야기'는 청춘을 위로하는 아날로그 감성 영화다. 우연히 전달된 편지 한 통으로 서로의 삶에 위료가 되어준 영화(강하늘)와 사회(천우희)의 이야기를 그린다.

이날 오후 10시 기준 실시간 예매율도 18.0%로 1위를 기록하고 있어 흥행 가도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한편 박스오피스 2위는 도미니 쿡 감독의 '더 스파이'(2만1540명), 3위는 서유민 감독의 '내일의 기억'(1만6877명)이 차지했다. 누적 관객수는 각 2만8276명, 18만297명이다.

강형석, '인간실격' 출연...박병은·손나은과 호흡

극중 박병은의 직장 후배이자 손나은과 엮이는 인물 '준혁' 역 맡아

배우 강형석이 JTBC '인간실격'에 출연한다.

올 하반기 방영 예정인 '인간실격'은 격렬한 어둠 앞에서 마주한 두 남녀의 가슴 시린 치유와 공감을 그린다.

배우 전도연이 아무것도 되지 못한 채 길을 잃은 여자 '부정' 역을, 배우 류준열이 아무것도 못할 것 같은 자신이 두려워진 청춘 끝자락의 남자 '강제' 역을 맡았다.

앞서 두 배우 외에도 박병은, 김효진, 손나은 등의 배우들이 캐스팅 소식을 알렸다.

강형석은 극중 정수(박병은 분)의 직장 후배

이자 민정(손나은 분)과 엮이는 인물 준혁 역을 맡게 됐다.

강형석은 "좋은 작품에 함께 참여할 수 있게 돼 무척 기쁘고 영광이다. 열심히 촬영해서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고 소감을 전했다.

강형석은 뮤지컬 '이블데드', 연극 '발칙한 로맨스' 등 무대에서 연기력을 쌓았다.

작년 tvN '사랑의 불시착'을 통해 TV드라마에 데뷔했다. 이후 SBS TV '낭만닥터 김사부', JTBC '삼김포차', '이태원 클라쓰', KBS 2TV '도도솔솔라라솔'에 출연했다.

